



전주실내체육관 증축 결정

44년만에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

전주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단 전주KCC이시스 농구단의 홈구장 전주실내체육관이 44년만에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한다.

전주실내체육관은 지난 1973년도에 건립된 이후 여러가지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왔다.

더욱이 지난해 KCC이시스 농구단이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전주시는 KCC이시스 농구단에게 전주에 남는 조건으로 구장의 증축 혹은 신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신축을 하는 안과 현재 위치에 증축

을 하는 두가지 안을 두고 내부 검토 거친 끝에 증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증축 방식의 경우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3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고 신축보다 사업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내부 검토 결과 신축에는 580억원, 증축에는 42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20억원을 들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300억원을 소모해 3층으로 구성되 있던 관람석을 4층으로 교체하고 400석을 늘리기로 했다.

관람객에게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주차장 역시 토지매입을 통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면 2년 정도 농구 경기가 불가능해 공사 기간 동안에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경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과 운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모델링 증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장 결재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사는 서울 장충체육관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철거가 가능한 부분과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한 뒤 건립하는 방안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체육인 신년하례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18일 오후 3시 서울 태릉선수촌 오룡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 도쿄하계올림픽 대비 2017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및 체육인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및 체육인 신년하례회에는 동·하계 8종목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276명을 비롯, KSOC 집행부 임원, 회원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체육계 및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다.

2000시드니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오교훈 양궁 남자

국가대표 코치의 사회로 국가대표 선수들과 체육인들이 신년 인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식사와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리우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과 유도 은메달리스트 정보경이 남녀 선수를 대표해 선사를 한다.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스포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로번, 독일 분데스리가 뮌헨에서 1년 더 뛴다

아르연 로번(33)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1년 더 뛴다.

뮌헨은 17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로번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로번은 2018년 6월30일까지 뮌헨 소속으로 그라운드를 누린다.

로번은 '뮌헨에서 더 뛴다'를 주제로 무척 기쁘다. 뮌헨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한 팀이자, 이 곳은 나와 내가 좋아하는 제2의 고향"이라며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칼 하인츠 루메니게 회장은 "로번은 자신의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이곳에서 8년 가까이 뛰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가 됐다"면서 변함없는 활약을 당부했다.

로번은 2009년 뮌헨에 입성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152경기에서 82골을 넣었다.

/김민근 기자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女 징역 2년 선고

법원, "협박 정황·범행 경위 등 비취볼 때 죄질 불량하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인 공범 B(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C(3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박유천은 A씨의 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성폭행 혐의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A씨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취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C씨에 대해 최 판사는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후 B씨·C씨와 공모해 박씨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5~8일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5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 다툼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뉴시스

영화 '암살' 표절 논란 소송 2심 판결도 승소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으로 제기된 소송의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아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여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아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고 제작사는 전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암살'은 2015년 8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지난해 4월 '코리아 메모리즈'의 최종판 작가가 제기한 100여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작사는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